

함량미달 ‘낙하산 인사’



이 정 희 역
西村브리핑

‘정피아’(정치인과 마피아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의 낙하산 공습(空襲)이 본격화할 태세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80여 곳의 공기기업이나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가운데 절반은 기관장이 아예 공석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운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인사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선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이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통해 취임하는 바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기기업이나 공공기관장의 경우엔 청와대의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 정부 국정 운영 철학과의 궁합까지 따지다 보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것도 인사 지연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낙천하거나 낙선을 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인사 지연 원인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 일각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 인사나 공공기관장 등 정부 요직에 사시 동기 9명을 포함 중앙대 출신들을 중용한 것을 비추어 볼 때 공석인 기관장 자리의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피아 공습의 예고편은 이미 금융권에서 시작된 느낌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연초 들어 새로 취임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이사진에 올랐다. 김성식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시 28회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장에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23년 7월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절 ‘노인 폼페’ 발언이 논란이 돼 혁

신위가 조기 해산되는 사태도 있었다.

이들 기관장 임명 후 그간 정체 국면에 있던 금융 공공기관 수장 인선도 재개될 것이라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이 새로운 기관장 수요가 있는 곳들이다. 낙하산 인사는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명사다. 정권을 잡기까지 모두들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고 정권을 잡으면 바로 뜯어고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내로남불’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 낙하산 인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도 낙하산 인사를 어쩔 수 없는 통치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친(親)정부 성향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과 함께 최소한의 ‘품격과 상식’을 갖춘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반감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함량 미달’의 낙하산 인사는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보다 권력에 쫓겨 대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ljin@metroseoul.co.kr

차보험료 인상과 ‘원가의 물’



김 주 형
(금융부)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늘 ‘서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번 변곡점은 인상폭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가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치솟았다. 업계 집계에는 2020년 이후 월 손해율이 96%대를 찍은 건 처음이다. 2025년 연간 누적 손해율도 대형 5개사 단순 평균 86.9%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3.7%포인트(p) 높아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손해율에 사업비가 더하면 합산비용은 100%를 넘어 적자압력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그런데 시장이 반영하는 보험료 인상은 1.3~1.4% 수준에 그친다. 2월 책임개시분부터 대형사들이 순차 적용하는 흐름이지만, ‘5년 만의 인상’이란 제목과 달리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 바구니에 포함돼 당국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라는 점도 인상폭이 ‘조율’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표를 둘러도 원가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사고가 늘어’서만 생기지 않는다.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되는 동안 부품비 등 물적담보 손해액은 꾸준히 늘었고, 정비 원가도 구조적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2026년 시간당 정비공임이 2.7% 인상되고, 차종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표준작업시간’도 8년 만에 전면 개정이 예고돼 있다. 한 번의 사고가 ‘더 비싼

사고’가 되는 속도는 보험료보다 빠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인상폭을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원가의 물’이다. 부품·공임·작업 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협상으로 끝내지 말고 제3자 검증과 사후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과잉수리·대차료·사고 처리 누수를 데이터로 관리해 절감 효과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료는 숫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인상폭보다 ‘사고 한 번’에 불어나는 수리비·대차료다. 그러나 숫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원가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 차보험료 논쟁은 ‘얼마 올랐나’가 아니라 ‘왜 비싸졌나’로 옮겨가야 한다. 그 근거가 보일수록 불신도 줄어든다. /gh471@

오늘의 운세 1월 23일 (음 12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녀 일로 신경이 쓰이나 점심 지나 해결된다. 48년생 감정 기복이 심한 자인을 타하라. 60년생 좀 더 사색하여 말하면 좋을 듯. 72년생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 84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 와있다.



37년생 제3자의 모략으로 구설 생기자 오늘은 외출 자중. 49년생 승진하게 되니만 사형통. 61년생 연인과의 갈등으로 종일 짜증. 73년생 서쪽으로 가서 다투지 않도록. 85년생 밝고 건전한 생각도 건강한 신체의 기능이 된다.



38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줄 것이다. 50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62년생 걸으면 걸을수록 질병은 완치된다 했다. 74년생 여행 중에 먹는 것으로 주의할 것. 86년생 한평생 민선 사람 둘 돌리니 허무.



39년생 핸드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51년생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으니 저금하라. 63년생 비교는 소문 부재가 아니겠는가. 75년생 공부는 평행하랬으니 도전. 87년생 상상력으로 용두사미 현실을 직시하라.



40년생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오니 운세가 좋아진다. 52년생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64년생 일신이 피곤한데 출장소식이다. 76년생 오늘 1과 6수가 행운을 가져올 것. 88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고 비밀만 새 간다.



41년생 화를 참기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해보라. 53년생 시기 질투는 일생 도움 되지 않는다. 65년생 자칫 숫자 적는 것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 77년생 지나친 자존심은 불리하다. 89년생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42년생 외출할 때 도둑 수가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라. 54년생 새로운 창업에 장인이 재물 힘을 실어준다. 66년생 모임에 참석해 다투지 마라. 78년생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딪치고 몰두하라. 90년생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43년생 막혔던 금전 운세가 호전되어 감사한 날. 55년생 부모의 돈이라도 공공에는 마음을 비우라. 67년생 칭찬을 들으면서 일을 하니 업무속도가 부쩍 증대된다. 79년생 재물자선이 늘어나니 기쁘다. 91년생 동남쪽에서 귀인이 온다.



44년생 재권 관계가 잘 성립되어 다행이다. 56년생 연인과 함께 생일날 멋진 드라이브. 68년생 동료 간에 실력 힘이 없으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80년생 과거의 베풀었던 공이 전환되어 길선 하다. 92년생 서북쪽에서 귀인이 온다.



45년생 나갔던 목돈과 문서에 기쁨이 생긴다. 57년생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면 최 씨 중매인을 선택해보라. 69년생 돼지꿈 결과에 기쁨이 크다. 81년생 일반주택을 사는 것이 현명할 듯. 93년생 이비인후과 쪽의 건강을 조사해 보자.



46년생 관재수가 따르니 가정불화 수인 듯. 58년생 외도를 의심하지 말고 2세를 갖도록. 70년생 진리는 가까이 데 있다고 했다. 82년생 어느 경우에 해당되어도 불만 갖지 말도록. 94년생 복잡할 때 걸으면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아라.



47년생 사건 두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59년생 귀한 기운이 움움에 가득하다. 71년생 차량안전에 유의. 83년생 사고는 예기치 않고 찾아오니 늘 주의가 요구된다. 95년생 직장 불평하러거든 다니지 말고 다니려면 불평하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AI시대의 문창성

AI시대가 되면서 당혹감을 감할 수 없다. 기술이 한 단계씩 발전하며 인간들은 자신을 대견하게 느끼며 문명의 발전을 즐겼던 것 같은데, AI 시대는 두려움이 지배적이다. 인간이 개발해 낸 AI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본다. 우선 직업이 줄어들고 있다. AI가 예측 이상의 빠른 속도로 각 분야에 응용되면서 사람의 손이 닿아야 완성도나 완벽도가 높아지는 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까지도 이미 AI의 활용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문창성의 극대화를 느끼는데 AI의 학습능력은 상상 이상이어서 엘리트들의 수호성인 문창성(文昌星)이 무색하다. 자주 감명을 할 때, 문창성이 뛰어난 사람은 보통 공부의 神(?)이라고 할 만큼 학습효과가 좋고 시험에 능하다.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엘리트 입신양명의 등용문인 고시에 유리하다.

전통시대에서는 개인의 출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AI가 인간의 고급 두뇌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해 낸 이후 과거제도의 출현을 가져왔고 또 과거제도가 말로 사회 엘리트 양성의 중요한 원천이었고 산업사회에 접어들어 근대 이후에는 기업의 탄생과 더불어 인정받는 인력 조달의 장이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되니 대학을 가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대학입학과 졸업은 문과나 이과를 막론하고 출세의 밑바탕이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이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재양성의 요람이었는데 근간에는 이러한 의미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대학입학에 목숨 걸던 역사도 사라질 지경이다. 이세돌 고수가 알파고에 무너질 때도 시린 가슴을 쓸어내렸었지만, 그때만 해도 설마 설마 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어찌해야 하나!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색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